

<http://dx.doi.org/10.17703/JCCT.2023.9.1.281>

JCCT 2023-1-34

예비유아교사의 교직윤리와 공감능력이 아동권리인식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s of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s' Teaching Ethics and Empathy on Awareness of Children's Rights

좌승화*, 엄세진**

Seung Hwa Jwa*, Se Jin Eom**

요약 우리는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대학교의 유아교육과에 재학 중인 예비유아교사 297명을 대상으로 교직윤리와 공감능력이 아동권리인식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질 높은 유아교사 양성기관의 인성 함양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는데 연구 목적이 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연구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예비유아교사의 교직윤리와 공감능력 및 아동권리인식의 인식 정도를 살펴본 결과 교직윤리, 아동권리인식, 공감능력 순으로 평균값이 높게 나타났다. 둘째, 예비유아교사의 공감능력, 교직윤리와 아동권리인식, 공감능력과 아동권리인식 간에는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예비유아교사의 교직윤리와 공감능력이 아동권리인식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을 살펴본 결과 교직윤리 중 사회윤리가 가장 강력한 예측변인으로 나타났다. 우리는 본 연구에서 예비유아교사의 아동권리인식 증진을 위한 다양한 접근방법에서 교직윤리와 공감능력이 효과적임을 규명하였다. 그리고 우리의 연구는 예비유아교사가 지녀야 할 바람직한 교사의 인성 함양을 위한 교육적 기초자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주요어 : 교직윤리, 공감능력, 아동권리 인식, 예비유아교사

Abstract We aimed to find out how teaching ethics and empathy affect the perception of children's rights with 297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s enrolled in the Departmen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at universities located in Busan. Through thi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present basic data for the development of a character development program for a high-quality early childhood teacher training institution. We derived the following research results. First,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degree of recognition of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s' teaching ethics, empathy, and awareness of children's rights, the average value was high in the order of teaching ethics, awareness of children's rights, and empathy. Second, there was a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s' empathy ability, teaching ethics and awareness of children's rights, and empathy ability and awareness of children's rights. Third,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relative effects of teaching ethics and empathy of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s on the recognition of children's rights, social ethics was found to be the strongest predictor among teaching ethics. In this study, we identified that teaching ethics and empathy are effective in various approaches to promote awareness of children's rights in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s. And the results of this study provides the basic data for the character development of desirable teachers that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s should have.

Key words : Teaching Ethics, Empathy, Awareness of Children's Rights,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s

*정회원, 동의과학대학 유아교육학과 교수 (제1저자)

**정회원, 부산디지털대학교 아동보육학과 부교수 (교신저자)

접수일: 2022년 12월 15일, 수정완료일: 2023년 1월 5일

게재확정일: 2023년 1월 9일

Received: December 15, 2022 / Revised: January 5, 2023

Accepted: January 9, 2023

**Corresponding Author: sjeom@bdu.ac.kr

Dept. of Child & Education, Busan Digital University, Korea

I. 서 론

인간은 누구나 인간답게 살 수 있게 보장 받아야 할 권리를 가진다. 권리는 누구나 보편적으로 당연히 누려야 할 삶을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조건이다. 아동 역시 권리의 주체자로서 평등하게 자신의 이익을 보장받고 존중되어야 하며 적극적으로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1].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는 것과 아동이 능동적인 권리의 주체가 되도록 권리교육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교사라는 점에서 유아교사가 가지고 있는 아동권리인식에 대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2]. 특히 유아교사가 되기 위한 준비단계인 예비유아교사의 아동권리인식 향상을 위한 노력은 더욱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예비유아교사들의 아동권리인식 향상을 위한 노력은 졸업 후 유아교육 현장에서 아동의 권리를 지키고 존중하는 주체자로서 역할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한편 교직윤리란 교사의 직업윤리로, 교사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마땅히 지켜야 할 자율적 행위와 규범을 의미한다[3]. 교사가 윤리적 행동규범을 가지고, 역할에 충실하며, 유아를 보호하는 도덕적 가치관과 태도를 가지도록 하는 것이 유아의 인권을 존중하는 교사의 자세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현재까지 예비유아교사의 교직윤리의식과 아동권리인식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밝힌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두 변인 간의 관련성을 살펴보는 것은 의의가 있다.

교사는 자신의 감정과 표현을 스스로 조절함으로써 아동의 감정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진실된 공감능력이 필요하다. 공감이란 타인의 기쁨과 슬픔에 대하여 같은 감정을 가지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다. 다른 사람의 느낌, 감정, 생각 등을 정확히 이해하고, 이해된 것을 바탕으로 상대방과 소통하는 능력을 말한다[4]. 교사의 공감능력이란 유아에 대한 관심과 배려로 유아와의 사회적 상호작용 및 도덕 발달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요인임과 동시에 유아와 좋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기본 조건이다[5]. 즉, 공감능력을 토대로 서로 간의 믿음과 신뢰가 쌓여 정서적인 갈등을 감소시킬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공감능력은 정서적, 인지적, 행동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공감은 인생에서 가능하면 가장 이른 시기에 공감할 줄 아는 부모나 교사로부터 배워야 한다 [6, 7]. 교사의 높은 공감능력은 유아의 사회성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함으로써 교사의 공감능력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밝혔다[8]. 이에 예비유아교사의 공감능력이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공감능력이 높을수록 예비유아교사의 아동권리인식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그러나 예비유아교사의 공감능력과 아동권리인식 수준과의 관련성을 밝힌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교직윤리, 공감능력, 아동권리인식 등 교사의 인성적 특성이 단기간에 형성되기 보다는 교사양성과정에서부터 지속적으로 인성교육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예비유아교사의 교직윤리와 공감능력이 아동권리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예비유아교사가 지녀야 할 바람직한 교사의 인성 함양을 위한 교육적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에 따라 본 연구에서 상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예비유아교사의 교직윤리와 공감능력 및 아동권리인식의 인식 정도는 어떠한가?
2. 예비유아교사의 교직윤리와 공감능력 및 아동권리인식 간 관계는 어떠한가?
3. 예비유아교사의 교직윤리와 공감능력은 아동권리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연구대상은 부산광역시 소재 대학의 유아교육과에 재학 중인 예비유아교사 297명이다. 연구대상의 성별로는 여자 281명(94.6%), 남자 16명(5.4%)이고, 연령별 분포로는 20세 122명(41.1%), 19세 79명(26.6%), 21세 58명(19.5%), 22세 18명(6.1%), 23세 17명(5.7%), 24세 3명(1.0%) 순이었다. 학년의 경우, 3학년 149명(50.2%), 2학년 114명(38.4%), 1학년 31명(10.4%), 4학년 3명(1.0%)으로 나타났다.

2. 연구도구

예비유아교사의 교직윤리를 측정하기 위해 양경혜(2012), 목혜정(2013)이 제작하고 곽희영(2014)이 수정, 보완한 교직윤리 척도를 사용하였다[9-11]. 교직윤리 척도는 영유아에 대한 윤리 11문항, 가정에 대한 윤리 9문항, 동료에 대한 윤리 5문항, 사회에 대한 윤리 5문항

으로 총 3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의 5점 척도로 응답하게 되어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교직윤리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교직윤리의 Cronbach’ α는 영유아에 대한 윤리 0.93, 가정에 대한 윤리 0.89, 동료에 대한 윤리 0.83, 사회에 대한 윤리 0.88 그리고 전체 0.96으로 나타났다.

예비유아교사의 공감능력을 측정하는 척도는 이혜진(2019)의 척도를 사용하였다[12]. 본 척도는 인지적 공감 15문항, 정서적 공감 15문항으로 총 3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의 5점 척도로 응답하게 되어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공감능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공감능력의 Cronbach’ α는 인지적 공감 0.70, 정서적 공감 0.72, 그리고 전체 0.74로 나타났다.

예비유아교사의 아동권리인식 척도는 Hart와 Zeidner가 ‘Children’s Rights Perspectives of Youth and Educators : Early Findings of a Cross National Project’를 통해 개발한 문항을 기초로 이재연과 강성희(1997)가 사용한 질문지를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13]. 본 척도는 생존권 7문항, 보호권 7문항, 발달권 7문항, 참여권 7문항 총 28문항으로 나누어져 있다. 각 문항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의 5점 척도로 응답하게 되어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권리인식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아동권리인식의 Cronbach’ α는 생존권 0.77, 보호권 0.89, 발달권 0.81, 참여권 0.93 그리고 전체 0.95로 나타났다.

3. 연구절차

부산광역시 유아교육과 재학생 1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예비유아교사의 교직윤리, 공감능력, 아동권리인식에 대한 설문내용의 이해와 적절성을 검토하였다. 예비조사 후 유아교육 전문가 3인을 통해 검토받은 최종 설문지를 가지고, 유아교육과 재학생 323명을 대상으로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불성실한 설문지를 제외하고 최종 297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4. 자료분석

본 연구는 Window용 PASW 20.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연구문제에 따라 설문지를 자료처리하였다. 연구

문제 1에서는 예비유아교사의 교직윤리, 공감능력, 아동권리인식이 어떠한지를 알아보기 위해 기술통계를 실시하여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연구문제 2에서는 각 변인간의 상관을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살펴보았다. 연구문제 3에서는 예비유아교사의 교직윤리와 공감능력이 아동권리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단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했다.

III. 연구결과

1. 예비유아교사의 교직윤리, 공감능력, 아동권리인식의 인식

예비유아교사의 교직윤리, 공감능력, 아동권리인식의 인식 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표 1에 보인 바와 같이 전체 평균은 교직윤리 4.72(SD=0.37), 아동권리인식 4.68(SD=0.39), 공감능력 3.54(SD=0.34)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교직윤리 하위요인별에서는 영유아에 대한 윤리 4.80(SD=0.36), 사회에 대한 윤리 4.71(SD=0.45), 가정에 대한 윤리 4.68(SD=0.40), 그리고 동료에 대한 윤리 4.65(SD=0.45) 순으로 높았다. 공감능력 하위요인별의 경우, 정서적 공감 3.58(SD=0.42)이 인지적 공감 3.50(SD=0.38) 보다 높았다. 아동권리인식 하위요인별에서는 보호권 4.78(SD=0.41), 참여권 4.74(SD=0.42), 발달권 4.60(SD=0.48), 생존권 4.59(SD=0.42) 순으로 나타났다. 왜도는 절대값 2 이하, 첨도는 절대값 7 이하로 정규분포 가정을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1. 주요변인 간의 기술통계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between major variable (N=297)

	하위요인	평균(M)	표준편차(SD)
교직 윤리	영유아에 대한 윤리	4.80	0.36
	가정에 대한 윤리	4.68	0.40
	동료에 대한 윤리	4.65	0.45
	사회에 대한 윤리	4.71	0.45
	전체	4.72	0.37
공감 능력	인지적 공감	3.50	0.38
	정서적 공감	3.58	0.42
	전체	3.54	0.34
아동 권리 인식	생존권	4.59	0.42
	보호권	4.78	0.41
	발달권	4.60	0.48
	참여권	4.74	0.42
	전체	4.68	0.39

2. 예비유아교사의 교직윤리, 공감능력, 아동권리인식 간의 관계

예비유아교사의 교직윤리, 공감능력, 아동권리인식 간의 상관을 살펴본 결과, 교직윤리와 공감능력 0.34, 교직윤리와 아동권리인식 0.77, 공감능력과 아동권리인식 0.26의 유의미한 정적 상관(p<0.01)이 나타났다. 또한 예비유아교사의 교직윤리, 공감능력, 아동권리인식 하위요인 간의 상관에서는 0.18에서 0.81 사이의 모두 정적인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예비유아교사의 교직윤리와 공감능력이 아동권리 인식에 미치는 영향

1) 예비유아교사의 교직윤리와 공감능력 총점이 아동권리인식에 미치는 영향

예비유아교사의 교직윤리와 공감능력이 아동권리인식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단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전 변인들 간의 다중공선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Durbin-Watson에 관한 검증을 실시한 결과 2.06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상분포 곡선을 의미하는 기준값이 2에 근접하므로 잔차에 대한 상관이 낮아 가정을 충족하게 되며, 이는 다중공선성이 없는 것을 의미한다. 그 결과 예비유아교사의 교직윤리는 아동권리인식을 60% 정도 설명하고 있다. 또한 F값 441.05로, p<0.001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위의 회귀모형식이 적합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2) 예비유아교사의 교직윤리와 공감능력 하위요인이 아동권리인식에 미치는 영향

예비유아교사의 교직윤리와 공감능력 하위요인이 아동권리인식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단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전 변인들 간의 다중공선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Durbin-Watson에 관한 검증을 실시한 결과 2.00으로 다중공선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에 보인 바와 같이 예비유아교사의 교직윤리 중 사회윤리와 영유아 윤리가 아동권리인식을 61%정도 설명하고 있다. 특히 사회윤리가 55%로 가장 많은 설명력을 보인다. 또한 F값 232.25로, p<0.001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예비유아교사의 교직윤리와 공감능력 하위요인이 아동권리인식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

Table 2. Relative effects of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s' teaching ethics and sub-factors of empathy on awareness of children's rights (N=297)

	독립 변수	B	β	t	R ²	R ² 의 변화량	F	VIF
1	(상수)	1.61		9.87***	0.55		357.01***	1.00
	사회 윤리	0.65	0.74	18.90***				
2	(상수)	0.78		4.11***	0.61	0.06	233.25***	2.03
	사회 윤리	0.42	0.48	9.27***				
	영유아 윤리	0.40	0.37	7.08***				

***p<.001

IV. 결론 및 제언

연구결과를 토대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예비유아교사의 교직윤리는 공감능력과 아동권리인식에 비해 약간 높았고, 하위요인인 영유아에 대한 윤리, 사회에 대한 윤리, 가정에 대한 윤리, 동료에 대한 윤리는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예비유아교사가 교직에서 교육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인 교직윤리에 대한 인식이 평균보다 다소 높은 정도로 나타난 것을 의미한다[14, 15]. 다음으로 예비유아교사의 공감능력은 평균 보다 높게 나타났다. 하위요인별로는 인지적 공감보다 정서적 공감이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유아교사의 공감능력 수준을 연구한 결과와 맥을 같이하고, 인지적 공감능력이 높게 나타난 연구 결과와는 다른 결과이다[16-18]. 즉, 공감능력이 높은 교사가 영유아, 동료교사, 학부모와도 긍정적인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한 연구와 예비유아교사를 위한 공감능력 증진 프로그램의 긍정적인 효과를 밝힌 연구 결과를 뒷받침하고, 예비유아교사가 심리 내적 개인특성인 공감능력을 갖추는 것은 중요하며 꼭 필요한 자질임을 강조하고 있다[19, 20]. 한편, 예비유아교사의 아동권리인식의 평균 점수는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고, 하위요인은 보호권, 참여권, 발달권, 생존권 순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예비유아교사가 아동이 유해한 것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 상대적으로 높게 인식하고 있음을 시사한다[21, 22].

둘째, 예비유아교사의 교직윤리, 공감능력, 아동권리 인식의 하위요인 상관관계에서 교직윤리가 높을수록 공감능력과 아동권리인식이 높아지고, 공감능력이 높을수록 아동권리인식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예비유아교사들이 공감능력 향상은 아동권리인식에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예비유아교사의 교직윤리와 공감능력을 포함하는 아동권리인식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개발이 필요하다[23].

셋째, 예비유아교사의 교직윤리와 공감능력이 아동권리인식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을 살펴본 결과 교직윤리 중 사회윤리가 가장 강력한 예측변인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영유아윤리가 추가적으로 예비유아교사의 아동권리인식을 예측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금까지 예비유아교사의 아동권리인식에 대한 교직윤리와 공감능력의 영향을 다룬 선행연구가 거의 없어서 직접적인 비교분석은 어려우나, 예비유아교사의 아동권리인식과 공감능력의 매개효과 분석한 연구의 연구에서 공감능력 중 정서적 공감이 가장 강력한 예측변인으로 나타난 부분은 본 연구결과와 같은 맥락이라고 보여진다[22].

우리는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다음과 같이 하고자 한다. 첫째, 아동권리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환경적 변인을 살펴보는 연구의 시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설문지를 통한 양적인 분석으로 제시되어 예비유아교사의 내면의 사고과정이나 생각들을 표현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인식은 경험, 생각 등을 기초로 형성되는 사고과정으로서 아동권리인식을 위한 다양한 맥락적 특성을 반영하고 인터뷰, 사례연구 등과 같은 방법을 병행한 연구가 요구된다.

References

- [1] W. J. Lee, S. Y. Zo, and J. H. Kim, *Child Rights and Welfare, Community*, Gyeonggi, South Korea, 2018.
- [2] J. S. Kim, *Meaning of Care-giving for Infants and Children's Rights Respect in Care-giving Teachers, and Its Implementation Standard*, Doctoral Dissertation, Sookmyung Woman's University, Seoul, South Korea, 2009.
- [3] H. S. Cho, E. J. Park and H. S. Ryu, "A Study on the Professional Ethics of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s," *Journal of Future Early Childhood Education*, Vol. 15, No. 1, pp. 301-325, 2008.
- [4] K. M. Kim, *A Study on the Relationship among Kindergarten Teachers' Teaching Communication Ability, Empathetic Ability, and Young Children's Communication Ability*, Master's Thesis, Sahmyook University, Seoul, South Korea, 2017.
- [5] H. J. Song, *The Effects of Early Childhood Teachers' Empathic Competence and Emotional Expressivity on Their Resilience*, Master's Thesis, Kwangju Women's University, Kwangju, South Korea, 2020.
- [6] J. H. Song, *The Effect of Early Childhood Teacher's Sympathetic Ability on Communicative Ability :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Job Stress*, Master's Thesis, Chung-Ang University, Seoul, South Korea, 2017.
- [7] S. J. Condly, "Resilience in Children: A Review of Literature with Implications for Education," *Urban Education*, Vol. 41, No. 3, pp. 211-236, 2006.
- [8] M. S. Kim, *The Relationship Between Early Childhood Teacher's Empathic Ability and Emotional Expressiveness and Peer Conflict Resolution Strategies of Children*, Master's Thesis, Kongju National University, Kongju, South Korea, 2019.
- [9] G. H. Yang, *An effect of child-care teachers' teaching ethics on role performance and job satisfaction*, Master's Thesis, Konkuk University, Seoul, South Korea, 2012.
- [10] H. J. Mok, *Study of Ethics and Efficacy for Instruction of Child Care Teacher*, Master's Thesis, Kyunghee University, Seoul, South Korea, 2013.
- [11] H. Y. Gwak, *A Study of Preschool Teachers' Awareness and Practiced of the Educational Ethics and the Relationship with Teaching Efficacy and Professionalism*, Master's Thesis, Kyungnam University, Kyungnam, South Korea, 2014.
- [12] H. J. Lee, *Structural Relationship Analysis among Early Childhood Teachers' Personality, Euphoria, Empathy and Teacher-Child Interaction*, Doctoral Dissertation, Dongguk University, Seoul, South Korea, 2019.
- [13] J. Y. Lee and S. H. Kang, *Children's Awareness of Their Rights*. *Journal of Korean Council for Children & Rights*, Vol. 1, No. 1, pp. 65-83, 1997.
- [14] S. J. Eom, "The Effect of Early Childhood

- Teachers' Self-leadership on Job Satisfaction: Mediating Effect of Happiness,"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JCCT)*, Vol. 8, No. 6, pp. 597-603, 2022.
- [15]H. S. Zo, "Developing Educational Model for Facilitating Early Childhood Teachers' Ethical Perception," *Early Childhood Education Research & Review*, Vol. 16, No. 4, pp. 373-394, 2012.
- [16]M. J. Kang, The effects of early childhood teachers' empathic competence and emotional expressivity on their professional development, Kwangju Women's University, Kwangju, South Korea, 2020.
- [17]S. Y. Lim, "A study on the Interactive Expression of Human Emotions in Typography," *International Journal of Advanced Culture Technology*, Vol. 10, No. 1, pp. 122-130. 2022.
- [18]E. A. Choi, "The Effects of Demographic Variables, Empathy and Ethical Perception on the Personality among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s," *Th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 16, No. 1, pp. 821-846, 2016.
- [19]S. K. U and Y. H. Seo, "The Relationship among Optimism, Empathy, and Communication Skills in Early Childhood Student Teachers," *The Journal of Korea Open Association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Vol. 21, No. 1, pp. 367-384, 2016.
- [20]K. A. Beining, Empathy in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s. Doctoral Dissertation, Indiana University, Pennsylvania, U.S.A, 2014.
- [21]K. M. Kim, A Study on the Influences of Abuse Experiences in Childhood and Human Right Sensibility of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s about Their Perception of Children's Rights, Master's Thesis, Daegu Catholic University, Daegu, South Korea, 2017.
- [22]S. E. Lee and J. S. An, "The Dual Mediating Effects of Early Childhood Teachers' Communication Ability and Empathetic Abilit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eachers' Awareness of Children's Rights and Guidance Strategy for Problem Behavior," *Journal of Child Welfare and Development*, Vol. 20, No. 1, pp. 21-42, 2022.
- [23]Y. M. Bae and Y. J. Zo, "The Study of Preschool Teacher's Awareness of Teacher-Parent Communication: Focusing on Communication Difficulties and Self-Efficacy," *Early Childhood Education Research & Review*, Vol. 18, No. 1, pp. 323-340. 2014.